

편집인의 말

金 永 植

송상용 교수의 뒤를 이어 학회지 편집인을 맡아 연 2회 발간을 시작한지 3년째가 되었다. 그 동안 여러 회원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하면서 몇마디 적는다.

우선 지난 2년간 편집작업의 대부분을 도맡다시피 했던 김근배님이 “편집인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알린다. 내가 편집인을 맡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자신의 일도 희생해 가며 학회지 발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그에게 깊이 감사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발간이 이만큼이라도 정착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의 노력에 힘입었다. 그가 하던 일을 이번 호부터는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서 현대물리학사를 전공하는 이은경님이 맡게 되었다. 자신의 공부와 연구, 강의 등에 더해 가외의 일을 떠맡아 애쓰게 될 새 편집인보에게 회원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물론 문중양님은 계속 서평담당 편집인보로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매번 편집작업을 도와준 김훈기님에게도 감사한다.

1년 2회 발간에 따라 투고된 원고를 오래 묵히는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심사절차를 마친 원고가 3개월 남짓의 기간 안에 출판되도록 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랐다. 특히 많은 원고가 註달기, 책이름 표기 등에서 “투고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작업을 지연시켰고, 漢字나 복잡한 부호를 많이 사용한 원고도 편집 및 조판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앞으로도 심사절차 완료후 조속 출판의 방침이 지속되기 위해서, 투고자들이 “투고규정”에 맞춰 원고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한 디스켓 형태로의 투고를 권장한다. 그리고 부득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원고의 경우에는 출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학회지가 논문, 연구노트, 자료, 綜說, 서평 등 여러 종류의 원고 형태를 출판하기로 하고 있지만 그 동안 “논문” 이외의 종류는 별로 신지 못했다. 원고가 거의 투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평”란은 전 편집인 때부터도 크게 신경을 써 왔지만 계속해서 여의치 못했다. 물론 우리 학계의 사정상 서평을 할 만한 좋은 책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자를 구하는 어려움도 매우 컸다. 결국 그때문에 최근의 두 역저——南天祐교수의 「石佛寺—土舍山の 重閣石窟」과 李燦교수의 「韓國의 古地圖」——에 대한 서평을 신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 학회의 현재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편집인을 처음 맡으면서부터 크게 기대했던 “綜說”도 한번도 신지 못해 왔는데, 이번에는 훌륭한 綜說원고를 얻어 게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논문, 서평, 綜說을 포함해서 그 외의 종류의 원고들도 앞으로 많이 투고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